

1-10 학급신문

1-10반 4월달 소식



1학년 10반 학생들이 벚꽃 나무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다

한재윤, 셔틀런 77개 뛰다!

손정원 기자

지난주 4월 6일 금요일 6교시, 학교 체육시간에
셔틀런 모의고사를 했다.

우리 반의 한재윤 학생이 20 m 셔틀런 77개를 기록하며 놀라운 체력을 보여주었다.

서틀런은 정해진 거리를 반복해서 뛰며 체력을 평가하는 종목으로, 20m 거리를 77번 오간 것은 매우 뛰어난 기록이다.(총 1540m를 쉬지 않고 뛴 셈이다.)

이것을 보신 남임선쌤께서는 "애들아, 소풍 가자!"
라고 하시며 우리 반 전체를 OO할인마트로 데리고
가서 아이스크림을 한 개씩 사주셨다.
한재운 학생의 열정과 끈기가 우리 반 모두에게
기쁨을 준 뜻깊은 순간이었다.

우리 반 친구들도 “한재윤, 고맙다.” 또는 “진짜 대단하다!”라고 감탄하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반의 단합력이 더욱 깊어진 것 같다.

1-10 오케스트라에 합격하다!

정재윤 기자

2025년 서운 오케스트라 최종 명단이 발표되었다. 1학년 10반에서는 이우찬(클라리넷), 박동유(바이올린), 한재용(호른), 이채윤(피아노) 학생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선발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네 학생은 뛰어난 연주 실력과 꾸준한 노력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4월 7일(월) 방과 후 3시 15분에 열리는 오케스트라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1-10 정재윤, 정보코딩대회 3등 수상

정재윤 기자

1학년 10만 정재운 학생이 최근 개최된 정보코딩대회에서 3등을 차지하며 뛰어난 실력을 입증했다. 이번 대회는 학교 대표 정보인재들이 참가해 수준 높은 경쟁을 펼친 가운데, 정재운 학생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탄탄한 코딩 실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번 달의 스도쿠

		6	3		7			
		4						5
1					6		8	2
2		5		3		1		6
			2			3		
9				7				4
	5							
	1							
		8	1		9		4	

학교생활

진로체험

- 박우민 기자

드디어 1학년의 첫 진로체험이 시작되었다. 중학교에 입학한 지 51일 만에 떠나는 진로체험이다. 학생들은 남산과학관, 서대문형무소, 롯데월드, 서울숲을 방문하며 서로의 우정을 키우고, 소중한 추억도 가득 쌓을 예정이다.

1학년 첫 진로체험!

남산과학관, 서대문형무소,
롯데월드, 서울숲에 가다!

특히 서울숲에서는 조별로 테마를 정해 사진을 찍는 '사진 찍기 활동'과, 친구들의 후드티를 알아맞히는 '너의 후드티는 모야' 활동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친구들과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고, 즐거운 경험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사진 찍기 조는 '진로 조'로 정해졌으며, 학생들은 테마에 맞춰 교복을 입거나, 필요한 소품을 직접 준비해올 수 있다. 중학교에서 처음 맞이하는 진로체험인 만큼, 이번 활동을 통해 우리 반의 우정도 더욱 깊어질 것 같다.



Photo Description: 서울숲 군마상 뒤

수행평가 지옥, 학생들에게 닥치다!

- 이하나 기자

4월 7일부터 시작해, 학생들은 이번 주에 수많은 수행평가를 치렀습니다. 체육을 비롯해 국어, 과학, 사회, 기술 등 다양한 과목의 수행평가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른바 '수행평가 지옥'을 겪게 된 것이죠. 시 창작하기, 대륙 소개하기,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영향과 노력 등 다양한 주제의 과제들이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겪는 대량의 수행평가로 인해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반 학생들 모두 수행평가를 무사히 잘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체육 서툰 학생들에서는 개인 사정이 있는 친구들을 제외하고, 누구도 4등급 이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다가올 다른 수행평가들도 잘 치르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점수와 결과, 저희 기자단이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1학년 10반 신동우 학생, 방송부(SUBS) 최종 합격...주변의 응원 속 첫 방송 순조롭게 시작

-신동우 기자

서운중학교 1학년 10반 신동우 학생이 학교 방송부(SUBS)에 최종 합격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신 학생은 지난 3월 5일 방송부 지원서를 제출했으며, 다음 날인 3월 6일 서류 추가 심사를 통해 극적으로 합격 소식을 받았다. 이어 3월 7일 급식 시간에 진행된 면접에서는 단정한 교복 차림으로 좋은 인상을 남기며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최종 합격은 3월 8일 발표되었고, 이후 정식 방송부원으로 등록되었다. 첫 방송은 3월 13일에 진행되었으며, 신동우 학생은 안정된 진행과 정확한 판단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방송부 합격 소식이 알려진 후, 같은 반 친구인 S군과 J군 등은 “축하한다”, “역시 될 줄 알았어” 등의 말로 신동우 학생을 응원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는 신동우 학생은 “책임감을 가지고 즐겁게 활동하고 싶다”며 포부를 전했다.



Photo Description: SUBS(SeoUn Broadcasting System) 로고

재능 많은 디벗이 효과적인 친구로 거듭나다.

디벗은 우리의 소중한 학습 친구이므로, 책임감 있게 올바르게 사용하여 스마트기기 중독 등 부작용을 예방해야 합니다.

-김서윤 기자

최근에 학교에서 디벗이 배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디벗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감이 커졌습니다.

디벗이란 digital + 벗의 줄임말으로서, “스마트기기는 우리의 학습 친구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디벗을 우리는 소중히 다루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디벗을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스마트기기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여름 방학 내내 디벗으로 웹툰만 본다면 학생의 부모님께서 크게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그 밖에 시력 저하, 거북목 증후군 등 여러 다른 부작용도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1학년들은 디벗의 올바른 사용 기준에서 벗어난 잘못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3년동안 우리와 같이 지낼 디벗을 잘 챙기면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성숙되고 책임감있는 우리가 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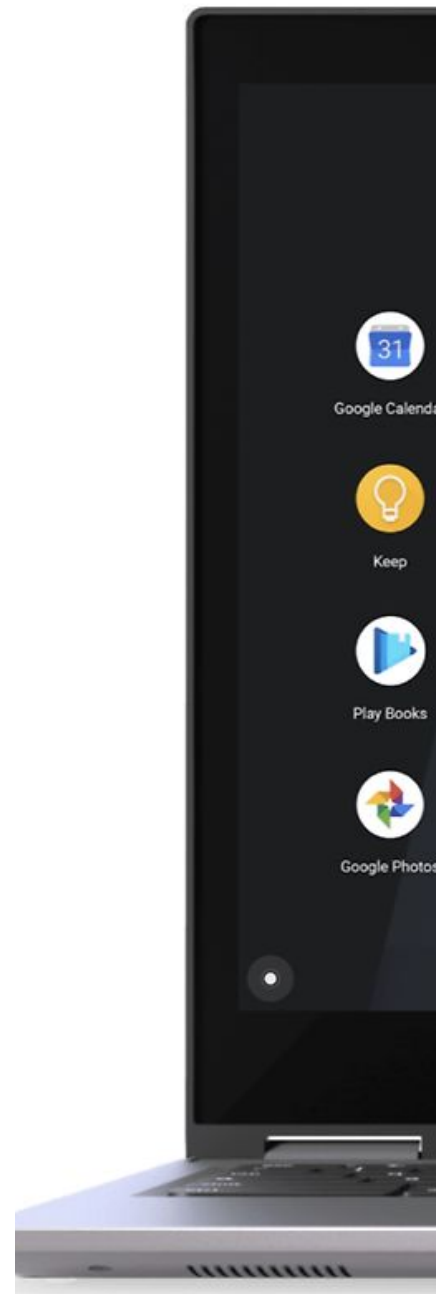


Photo Description: ChromeBook



보이는 사연 라디오 시사회

-김규아 기자

보이는 사연 라디오를 통해 정서를 표현하라는 임무(?) 아닌 임무를 받은 10반 학생들은 총 6개의 모둠으로 나뉘어 영상을 제작했다.

1모듬의 김규아, 박동유, 신동우, 이서준은 친구가 전학 간 사연과 여자친구와 야구 본 사연을 영상으로 제작했다. 편집자 이서준은 100억 받기와 국어영상 제작 중 "100억 받... ㄱ" 에서 급유탄을 하여 국어영상 제작을 택해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100억 받... ㄱ"

-이서준

2모듬의 이채운, 정서빈, 조유찬, 서재운, 황유민, 이하나는 다쳤을 때 친구가 물병을 갖다 준 사연을 영상으로 만들었다. NG장면에서 갑자기 점프스쿼트를 하는 모습이나, 갑자기 기절(?)을 하는 모습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나오는 상황이 벌어졌다.

3모듬의 정재운, 김희원, 김서운, 이우찬, 박우민은 그림으로 미국에서 진정한 친구를 찾게되는 사연을 영상으로 제작했다. 특이하게 그림으로 사연을 진행하는 모습과 더불어 감동적인 결말로 친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엔 충분했다.

임예빈 실종사건

4모듬의 신예림, 손정원, 이아인, 김현우, 한재운, 이필립은 오빠와 싸우고 화해하게 된 사연을 영상으로 제작했다. 이

사연라디오로 모든 모듬의 라디오에 등장하는 정체불명의 초록장갑과 국자의 용도가 드러나게 되었다. 또, 한재운의 리얼한 오빠연기에 여동생들의 트라우마(?) 비슷한 것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5모듬의 임예빈, 한재용, 윤들, 유지서, 김유담은 학원에서 어쩌다보니 실종된 사연을 그림으로 제작했다. 얼마 없는 그림으로 제작한 사연라디오이자, 소리도 없는 독특한 방식으로 실종된 사연을 재미있게 풀어냈다. 그림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등장한 자동차 사진에 난데없이 자동차에 대한 토론이 잠시 벌어지는 해프닝이 생기기도 했었다.

김하랑의 대단한 넘어짐

6모듬의 김하랑, 김예린, 김윤준, 최해나, 정연재는 뛰다가 넘어져서 다친 사연을 영상으로 제작했다. 정말 리얼하게 넘어져 진짜 다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연기력이 뛰어났다. 이 사연라디오로 국어시간만 되면 맨날 복도에서 넘어지고 구르고 먼지를 뒤집어쓰는 이미지가 될 뻔한 상화를 모면했다.

이렇게 사연라디오를 감상한 이후에는 무서운 이야기도 보았는데 잠깐 '친구들이 너무 시시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10반은 돌고래도 울고갈 초음파를 발사하면서 즐겁게(?) 감상하였다.

건강한 이성교제의 중요성

-이필립 기자

최근 들어 1-10반에서 커플, 즉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성교제는 특히 어린 나이에 시작할 경우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장점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해질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더 조심하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경계를 넘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성교제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나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당한 선을 지키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지만, 공공장소에서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우리 모두 서로의 선을 지키며 책임감 있게 생활합시다!



건강한 이성교제의 예시